

국내 학교도서관교육의 정책적 현안과 과제*

Political Issue and Problem of School Library Education in Korea

박 주 현 (Ju-Hyeon Park)**

이 명 규 (Myoung-Gyu Lee)***

목 차

- | | |
|---------------------------|------------------------|
| 1. 학교도서관의 의의 및 도서관교육의 필요성 | 4. 학교도서관교육의 정책적 현안과 과제 |
| 2. 학교도서관 교육 정책 현황 | 4.1 운영, 시설과 장서 |
| 2.1 관계법령 | 4.2 인적자원 |
| 2.2 관련정책 | 4.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
| 3. 학교도서관교육 행태 및 성과 | 4.4 장학체계 및 지원체계 |
| 3.1 독서행태와 학교도서관교육 | 4.5 법적 근거 마련 |
| 3.2 정보활용능력과 학교도서관교육 | 5. 결 론 |

초 록

이 연구는 학교도서관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학교도서관이 교육성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현안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도서관교육과 관련된 법과 주요 정책을 살펴보고 학교도서관교육의 행태와 성과에 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인적자원의 전문성 향상, 교육과정 개선, 장학 및 지원체계 정비, 관련법 개정을 정책적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방향과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resent issues and problems in producing educational performance of school library and to manage school library education ordinarily. For this purpose, after searching the principle and main policies related to school library education, we analyzed the previous researches concerned with behaviors and outcomes of school library education. As the results, professional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curriculum improvement, modification of promotion and supporting system, and the amendment related to principles are established as political goals before suggesting progress direction and better method.

키워드: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교육, 학교도서관 정책, 사서교사, 학교도서관진흥법

School Library, School Library Education, School Library Policy, Teacher Librarian, School Libraries Promotion Act

* 이 글은 2013년도 한국문헌정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국내 학교도서관의 정책적 현안과 과제'를 수정·보완한 것임.

** 광주 신가초등학교 사서교사(parkjuhyun12@hanmail.net) (제1저자)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gyulee@jn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14년 1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14년 2월 4일 게재확정일자: 2014년 2월 12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1): 299-328, 2014. [<http://dx.doi.org/10.4275/KSLIS.2014.48.1.299>]

1. 학교도서관의 의의 및 도서관교육의 필요성

학생들에게 올바른 지(知)·정(情)·의(意)를 가르쳐 창의인성인재를 육성하고,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서교육, 정보활용교육과 같은 학교도서관교육¹⁾이 필요하다. “학교도서관은 인간관계나 정서적인 문제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학교이고, 다양한 탐구 활동과 프로젝트 활동 등을 통해 스스로 배워 갈 수 있는 힘을 길러 주기에 최적한 곳”이며, “지성이 자라는 공간이자 자아를 발견하고 성장해 가는 곳”이라고 말하는 학교장들의 언급(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 서울모임 2012, 15-16, 126-128)은 학교도서관이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시키고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공간임을 의미한다. “책을 읽으면서 나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알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는 독서만큼 이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것은 없다”는 아침독서 창시자의 발언(신우성 2009, 255-256)은 독서교육이 인성과 창의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장 전문가의 인식은 많은 연구결과로도 증명되고 있다. 학교도서관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독서능력, 사고력, 창의력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학교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독서량이 많은 학생은 학업성적은 물론 사고력과 창의력이 높은 것이다(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08, 27). 결국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의 보편적 영역인 학교도서관교육을 통

해, 학생들을 21세기에 어울리는 학습자로 양성해야 하며(이병기 2009) 학생들이 건전한 독서문화생활을 영유하고 올바르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생들은 건전한 독서문화생활을 영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올바른 정보 활용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최하위에 머물렀으며, 2013년 조사결과도 72.5점으로 OECD 23개국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9: 2010: 2011: 2012: 2013). 우리나라 국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당 21.5명으로 OECD 30개국 중 1위를 차지했으며(김용하 외 2011, 54), 2011년도 인구 10만 명 당 청소년 자살자 수는 13.0명으로 청소년 사망원인 1순위가 고의적 자해(자살)로 나타났다(통계청, 여성가족부 2012). 또한 소년범죄에서 강력범죄 급증하고 있으며(대검찰청 통계자료 범죄분석 2008: 2009: 2010: 2011), 최근 학교폭력을 ‘사회 4대악 척결’의 하나로 지목할 만큼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지표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와 전인적 성장 환경이 미흡한 수준임을 알려준다.

반면에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에 위치해 있다. OECD에서 발표한 국제학업성취도비교조사(PISA) 결과, 2009년 PISA 평균점수가 읽기 2위, 수학 3위, 과학 4위를 차지하여 전체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생들은 실

1) 이 논문에서는 ‘학교도서관교육’을 ‘사서교사가 시설과 장서 등의 학교도서관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활동을 하거나 교사로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 활동’으로 학교도서관 활용 교육을 ‘교사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운영에 학교도서관을 활용하는 활동’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학교도서관교육이 사서교사의 교육적인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학교도서관 활용 교육은 학교도서관이라는 시설물의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질적인 학습시간이 많아 PISA 점수가 높은 것으로 학습 효율성은 저조하며(동아일보 2008. 10/31), 한국의 창의인재 비율 또한 낮음을 알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2, 60). 한국 학생들의 1일 평균 학습시간은 일본 학생들의 146%, 미국 학생들의 321%에 이르나 여가 및 기타시간은 미국 학생들의 73%, 일본 학생들의 80%에 불과하다(한국교육개발원 2012, 65). 문제는 여가활용으로 독서하는 시간은 적어지고(한국출판연구소 2008; 2009; 2010), TV 및 DTV 시청, 컴퓨터 게임 시간이 증가하고 있으며(통계청 2007; 2009; 2011),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 중독률 증가와 청소년 성인용 음란물(매체) 이용 경험 증가로 이어졌다.

종합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업 경쟁으로 학습하는 시간은 많은데 비하여 건전한 독서문화생활을 못하고 있으며, 급격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올바른 정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의 창의력을 계발하는 교육과정과 자아 존중감, 배려와 같은 인성교육활동들을 재고하고 정보교육이 어떤 형태로 교수·학습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함을 의미한다.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은 인성·창의교육의 핵심적인 내용과 과정으로 학교도서관 설치의 목적이자 책무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도서관교육과 관련된 법과 정책, 학교도서관교육의 행태와 성과를 살펴 학교도서관이 교육의 시설물로서 활용되고 학교도

서관교육과정 운영이 교육성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현안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학교도서관 교육 정책 현황

2.1 관계법령

학교도서관 교육²⁾ 실시를 위한 법적근거는 도서관법, 학교도서관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 교육기본법, 영재교육진흥법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도서관법에서는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도서관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은 교사와 학생, 직원에게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독서활동지원 등의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업무로 자료의 개발·제작, 도서관 이용의 지도,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활용의 교육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는 학교도서관이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 학교도서관 이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명시하고 있다. 독서문화진흥법에서는 국민이 독서 문화 진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학교도서관 시설 및 환경개선, 독서 교육 관련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독서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사서교사나 독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

2) 이 논문에서는 '학교도서관 교육'을 '교사가 학교도서관의 인적자원과 시설, 장서 등 제반 환경을 활용하여 학생과 교사, 학부모에게 교육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활동'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사서교사가 단위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학교도서관 교육활동에 관한 업무를 사서교사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때의 '학교도서관 교육'은 사서교사가 계획한 교육과정과 관련이 있다.

다. 교육기본법에는 직접적인 도서관교육과 관련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제9조(학교 교육),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제24조(학술문화의 진흥)에서 학교도서관과 학교도서관 교육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영재교육진흥법 제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제1항을 살펴보면, 창의적 사고 능력 등이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학생을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한다고 명시하고, 동법 시행령 제29조(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제1항 제3호에 사서교사 1인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제38조의2(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제1항 제3호에는 교수·학습자료 수집 및 관리 등도 명시화되어 있다. 영재교육진흥법과 동법시행령은 사서교사가 영재대상자를 직·간접적으로 교육하며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교수·학습을 지원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사서교사가 일반 학생들뿐만 아니라 영재교육 대상 학생들에게도 독서교육이나 정보활용교육 등의 학교도서관 활용 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도서관법, 학교도서관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 교육기본법, 영재교육진흥법은 국민, 특히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의 자원을 활용하여 독서 문화교육, 정보이용교육 및 정보활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학생들이 지식을 쌓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삶을 질을 개선하여 행복한 삶을 실현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2.2 관련정책

학교도서관은 학교장과 교육감, 교육부장관에게 지도·감독을 받는다. 즉 학교도서관은 단

위학교, 시·도교육청,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도서관법에는 학교도서관도 도서관 종류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도서관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로, 학교도서관이 법적인 관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정책에서 학교도서관 현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정책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도서관 교육과 관련된 주요 국가차원의 정책은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 방안(교육인적자원부 2002),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교육과학기술부 2008), 초·중등 독서활성화 방안(교육과학기술부 2011), 도서관발전종합계획(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08)이 있다.

2.2.1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 방안

학교도서관의 인프라 확충의 획기적인 발단은 2002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수립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한 '좋은 학교 만들기 -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 -'이었다. 세부 추진 방향은 <표 1>과 같다.

수립된 지 10여년이 지난 정책이지만 이 정책은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사실을 일러 주고 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시책에 대한 상기는 물론,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지원과 교수학습 모델 개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지원, 선택교과의 개설,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학교도서관 활용 부분 반영, 교대 및 사범대 교직과정에 도서관 활용 수업과정 신설 유도 등은 학교도서관 교육 지원 체제

〈표 1〉 2002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 세부 추진 방향

세부 추진 방향
<input type="checkbox"/> 학교도서관을 종합적인 교수학습지원 시설로 전환 권장 • 학교교육계획의 필수사항으로서의 독서교육 강화
<input type="checkbox"/> 교육과정(교과서) 운영에 근거를 둔 학년별·교과별 『필독도서』 지정 운영
<input type="checkbox"/> 학교도서관을 거점으로 하는 특별활동·재량활동, 선택교과의 개설·운영
<input type="checkbox"/> 도서관 운영 및 관리 전담인력 확보 • 학교도서관 전담 관리인력의 전문성 제고
<input type="checkbox"/>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에 학교도서관 활용 부분 반영 • 매년 수립되는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및 독서교육이 반영되도록 지침 통보 • 향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에 반영 추진
<input type="checkbox"/> 학교도서관 활용 교수-학습 활성화 추진 •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사례 및 장학지도 자료 개발·보급 •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에 『교수-학습 모델 개발팀』 운영 • 교대 및 사범대 교직과정에 도서관 활용 수업과정 신설 유도
<input type="checkbox"/> 학교도서관 활성화 기획·평가팀 구성·운영 • 교육부 『학교도서관 실무작업팀』 지속 운영(인원보강 추진)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 『학교도서관 지원팀』 운영

와 학교도서관교육 과정이 미비한 지금의 현실에서도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다.

2.2.2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은 학교도서관진흥법에 근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2008년도에 1차 계획을 수립하여 2009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적용한 정책이다. 제1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은 4대 전략(이용자서비스 확대 강화, 도서관 기본역량 강화, 학교도서관 진흥체제 강화, 학교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추진과 3대 핵심가치(창의성 신장, 인성교육 강화, 자기주도적 학습)를 제시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을 교수·학습 지원의 중심으로 기능하게 하고 학교도서관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도서관 이용경험과 도서관 활용교육 미흡 등의 도서관

기본 서비스 제공 부족의 문제, 장서의 질이 낮고 학교도서관 이용이 학습력 향상과의 연계가 부족한 문제, 체계적인 단위학교 지원이 미비하고 국가적·교육청 차원의 지원체제 및 제도적 뒷받침이 미약한 문제 그리고 서비스 제공 인력 미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1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의 학교도서관 진흥 방안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1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이 추진되는 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도서관교육 장학자료를 개발·발행하였고 현장에서는 학교도서관 이용교육이 활발히 실현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또 초·중등 독서 활성화 방안과 연계되어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도서관 교육이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구성원들은 학교도서관 장서에 만족하지 못하였고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수업을 교육과정으로 운영하지 못하였다.

〈표 2〉 1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 주요 내용 정리

방안	내용
이용 서비스 확대 강화	1. 이용자 확대 및 이용자 인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성교육 등을 지원하는 도서관 이용 및 독서 프로그램 강화 • 장서 질 개선을 통한 수준별 교수·학습 자료 지원 서비스 확대 • 학교도서관 이용교육(독서교육)을 연간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 • 학교도서관 이용교육·정보활용교육 및 독서교육 가이드라인 제공 2. 학교도서관과 연계한 교수·학습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에 도서관 이용교육·독서교육을 주요사항으로 반영 3. 학교도서관 자료를 활용한 교수·학습 지원 체제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매뉴얼과 수업안 등을 제공
도서관 기본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도서관진흥법의 정원과 배치기준에 따라 인력 확보 • 교(감)장, 교과교사, 서서교직원, 학부모 연수 실시
학교도서관 진흥 체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학기술부 단위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구성·운영 • 시·도교육청 단위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구성·운영 • 학교단위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구성·운영 •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도서관 중앙 컨설팅팀 운영 • 시·도교육청에 학교도서관지원센터 구축 • 지원단 운영으로 학교도서관 문제를 현장에서 바로 해결

장학 및 지원체제도 제자리 수준에 머물렀다. 향후 진흥계획에는 교육부에 설치한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시·도교육청에 설치한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와 학교도서관지원센터, 단위학교에 설치한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진흥 체계 운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사서교사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교육에 대한 장학·지도·평가 체계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2.3 초·중등 독서 활성화 방안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에 3대 추진전략(학교·지역청 자율, 학부모·지역사회 연계·참여, 바람직한 독서문화 확산)과 5대 추진과제, 3대 목표(학교생활에 스며드는 독서, 균형잡힌 독서, 자발적으로 즐기는 독서) 달성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력과 인성 함양, 독서

환경 여건을 조성하고자 ‘초·중등 독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초·중등 독서 활성화 방안의 5대 추진과제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초·중등 독서 활성화 방안은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보다 추진내용이 구체적이며 추진담당기관과 부서를 명확히 하고 있다. 추진기관이 시·도교육청 과제인 경우 기운영사업 및 향후 조치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시·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초·중등 독서 활성화 방안은 단위학교의 독서교육을 활성화 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이 초·중등 교사 중심으로만 계획되어 있어 협력수업과 같은 교육과정 운영에 사서교사를 활용하지 못하였고 학교도서관 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학교도서관활용수업도 활성화시키지 못하였다. 이는 정책 입안자들이 독서 습관 형성과 여가활용이라는 독서문화적 측면에서 학교도서관의 중요

〈표 3〉 2011 초·중등 독서 활성화 방안

방안	내 용
학교생활 속 독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규교과와 연계한 독서활동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인성교육 수업모델 개발의 일환으로 교과별 독서연계형 수업모델 개발·보급 • 창의적 체험활동 및 방과후학교를 연계한 독서활동 확대 • 학교회계에 독서활동지원 비목을 신설하여 단위학교의 관심과 지원 강화
교원·학부모 독서교육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의 독서교육 역량 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독서교육연구회 지원 - 독서교육 전문가와 교과교사, 사서교사 등이 실천적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독서교육 포럼' 개최 ○교·사대의 교육과정에 독서교육 관련 내용 반영을 권장 ○학부모 독서교육 역량 강화
독서 친화적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도서관을 '학습과 휴식' 공간으로 지속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관련 도서 대폭 확충 ○학교·교과 단위 등으로 좋은 책 정보 제공 확대
학교·지역 중심의 독서문화 운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지역 단위로 학급문고의 날, 책의 날, 독서의 달 등을 지정·운영하여 독서에 대한 관심과 지원 유도
독서 활성화 지원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의 독서교육 우수사례 적극 발굴·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교육개발원을 학교독서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독서관련 기반 연구 및 우수사례 발굴·보급, 자료 개발, 교사연수지원 등 전담 • (가칭)학교 독서교육대상을 제정·시상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정비 및 자율적 활용

성을 간과하였으며 단위학교 독서교육과정운영이 학급에서만 아니라 학교차원에서도 추진되어야 교육적 효과가 배가됨을 망각한 것이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이 학교도서관을 통해 보다 쉽게 책을 접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향후 정책에는 사서교사와 학교도서관을 활용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2.2.4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해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학교도서관도 도서관법에 명시된 도서관의 한 종류로서 학교도서관 발전과 진흥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2008년도에 수립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시행되었다. 도서

관발전종합계획은 선진 일류국가를 선도하는 도서관을 비전으로 3대 목표와 8가지 추진전략을 설립하였다. 학교도서관과 관련한 추진전략과 주요정책과제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강화에는 현재 학교도서관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고스란히 언급되어 있다. 시설과 장서, 예산, 전문인력(사서교사) 배치, 사서교사의 전문성 확보, 도서관 이용서비스로 학교도서관 활용 교육의 확대, 정보활용교육과 도서관활용수업의 제도화, 도서관협력수업 및 활용수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강화, 학교도서관 진흥 추진체계 개선으로 교육부내 전담조직 필요, 장학체제 확립, 평가체제 구축, 학교도서관 진흥재단 설립 등, 추진전략으로 설정되어 있는 내용은 여전히 학교도서관이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표 4〉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중에서 학교도서관 관련 추진전략 및 주요 정책과제

추진 전략		주요 정책과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강화	⇒	○ 학교도서관 교수·학습 지원서비스 강화 ○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및 지원체계 확대
도서관 인력의 전문화 및 관련 제도의 선진화	⇒	○ 사서자격제도 개선방안 마련 ○ 주제전문사서의 양성기반 마련 ○ 도서관 전문인력의 지속적 충원 및 재교육 강화
지식정보 확산 및 공유를 위한 U-Library 구현	⇒	○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전문 지식정보서비스 환경 구현 ○ 효율적인 도서관정보화 정책 추진체계 강화
도서관 협력기반 강화로 글로벌 도서관정보서비스 구현	⇒	○ 전국 도서관 협력체계 강화 ○ 국제 정보교류협력 강화로 국제적 위상 제고

3. 학교도서관교육 행태 및 성과

이 장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독서와 정보활용능력이 학교도서관교육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3.1 독서행태와 학교도서관교육

초·중등 학생의 독서실태에 대한 표준자료 를 제공하는 국민독서실태조사(한국문화관광연

구원 2012)는 독서생활 활성화와 독서환경 개선 등 독서 정책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2011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 학생 조사 결과만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학생들의 약 절반정도는 독서가 삶에 도움이 되지만 자신의 독서량은 부족하다고 느끼며, 교양을 쌓고 인격을 형성하기 위한 독서보다는 지식과 정보를 알기 위해 독서를 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절반에 가까운 학생이 독서가 삶이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과 약 75%의 독자가 독서한 책에 대

〈표 5〉 2011년 국민독서실태조사 학생 결과

조사내용	응답 정리
독서량	1년 동안 24.3권(초등학생(45.0권), 중학생(14.4권), 고등학생(15.4권))
독서량 평가	학생의 53.9%가 부족하다고 인식
독서장소	집(54.7%), 학교 및 학교도서관(18.8%)
독서목적	학습독서(37.1%), 교양독서(15.8%)
도서 선택 기준	책을 직접 살펴보고(39.7%)
도서 입수 경로	직접 구입(27.05), 학교도서관(21.7%)
삶에 미치는 영향	삶에 도움이 된다(49.8%)
책 관련 대화	친구와 정보 공유(10.5%), 가족과 정보 공유(13.9%)
학교도서관 이용 유무	이용 경험(81.6%)
학교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시간 없음(23.6%), 읽을 책 없음(21.9%), 원하는 책 찾기 어려움(18.6%)
독서 진흥 방안	좋은 책에 대한 소개와 정보를 제공해야(58.3%) 학교도서관을 편하게 이용해야(54.9%), 학급문고 늘려야(49.2%)

해서 친구나 가족과 대화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단위학교의 독서교육과정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일러 준다. 지난 1년 동안에 학교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0명 중에 8명에 이르나, 학교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는 비율이 21.7%에 불과하며, 학교도서관에 읽을 책이 없거나 검색하기 어려워 이용하지 않는다는 학생들의 조사 결과는 장서 선정과 분류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목록과 검색시스템의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해야 함을 일러 준다. 독서교육과정 운영과 전문성은 인적자원으로부터 발현되고 시스템은 장학·지원체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학교도서관이 교육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과 장학·지원체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는 1997년 OECD에 의해 시작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이다. PISA는 만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3년을 주기로 읽기·수학·과학 소양을 평가한다(OECD PISA). 각국은 자국의 교육 체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평가 지표로 PISA를 활용하고 있다. 2009 PISA의 읽기 소양(reading literacy)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지식과 잠재적 능력을 계발하며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다양한 텍스트를 이해, 활용하고 텍스트를 바탕으로 성찰하며, 다양한 텍스트 읽기 활동에 참여하는 능력”으로 정의되어 있다(OECD PISA). 강대중과 염시창(2013, 323-345)은 PISA 2009 읽기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학생 수준의 변수로 읽기 즐거움, 매일 읽기 참여시간, 읽기전략 중 요약전략과 통제전략을, 학교 수준의 변수로는 학교평균 읽기 즐거움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대석(2011, 161-185)은 PISA 2009 읽기영역을 중심으로 교과 및 교과외 활동변인과 성적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독서시간이 많고 도서관 방문빈도와 높은 학생이 읽기 성취도가 높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Lee In-Hoi와 Kim Min-Hee(2013, 1-20)는 PISA 2009의 읽기소양 결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OECD 8개국 중에서 6개(한국, 일본, 중국-상하이, 뉴질랜드, 핀란드, 호주) 국가를 비교분석하여 읽기소양에 영향을 준 주요 요인을 찾아냈다. 그 결과 6개 국가 전체 또는 대부분의 국가에 적용되는 공통요인은 3가지는 ‘가정에서 보유한 도서의 수, 읽기 전략과 태도, 읽기 즐거움 변인’이었다. 옥현진과 김경희(2011, 383-407)는 PISA 2009 읽기 영역을 분석한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의 PISA 읽기 영역 평균 점수의 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가 활용 독서와 독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텍스트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병기(2012, 209)는 PISA 2009의 읽기 소양을 독서 리터러시로 번역하고, PISA 독서영역의 평가 내용과 설문지에 나타난 학교도서관 관련 요소를 분석하여 AASL(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의 ‘21세기 학습자 기준’과 비교한 결과 학교도서관이 PISA의 독서 리터러시와 연관성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학교도서관교육의 성과를 측정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다른 평가 도구를 통해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PISA에 관한 연구 결과는 학교도서관교육이 학생들의 읽기 소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이는 PISA의 읽기와 학교도서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독서활동이 중첩되는 영역이며 학교도서관이 독서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3.2 정보활용능력과 학교도서관교육

정보활용교육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알래스카 주에 있는 211개 공립학교 3개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CAT5 (Version 5 of California Achievement Tests)의 읽기, 언어능력, 수학점수에 근거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학생들이 사서교사로부터 도서관 이용교육/정보활용능력 교육을 자주 받을수록 성적이 높다는 것(Lance 1999)과 펜실베이니아 주에서의 후속 연구에서 3개 학년을 대상으로 PSSA (Pennsylvania System of School Assessment)의 읽기 점수를 이용하여 학업성취도를 측정한 연구 결과, 정보활용교육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사서교사가 학생들에게 도서관 이용교육을 실시하는 시간이 길수록 성적이 높았다(Lance 2000).

이병기(2012)는 2009 PISA에서의 리터러시(literacy)를 미래 지식기반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으로 단순한 문자 해독에 그치지 않고 학교도서관계의 정보활용능력(information literacy)과 같은 포괄적 의미로 해석된다고 하면서 PISA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도서관 변인을 <표 6>과 같이 기술하였다. PISA 설문 문항과 학교도서관 변인과의 관계성은 학교도서관이 ICT를 활용한 정보활용교육을 수행해야 하는 책무성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학교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자료 및 설비를 확충하였으며, 도서관 이용교육 실시 및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모형을 개발하여 활용하였더니 교사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정보활용능력이 향상되었다(이지연 2009, 10-11). 이러한 현장의 결과는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교육활동이 학습능력과 교수능력의 향상은 물론 정보활용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려준다.

미국은 1998년에 발행된 국가수준의 학교도서관 기준(Information Power: Building Part-

<표 6> PISA 설문지와 학교도서관 변인의 비교

구분	설문영역	설문문항	학교도서관 변인
학교용	학교의 교육자원	11. 수업에 지장을 주는 교육자원의 정도	프로그램 개발, 정보기술
	학교의 수업, 교육과정, 평가	13. 교과 외 활동, 15. 평가 방법의 수행 정도	리더십, 협력관계
	학교장의 특징	26. 학교장의 역할과 리더십의 정도	리더십, 협력관계
	도서관	28. 도서관 유무, 29. 학교도서관 보유 장서 수, 30. 도서관활용수업의 정도	프로그램 개발, 협력관계, 단력적 시간표 운영
학생용	독서활동	22. 취미 독서의 1일 평균 시간, 23. 독서 행태별 정도, 24. 자료 유형별 독서의 정도(잡지, 만화, 소설류, 비소설류, 신문), 24. 인터넷 독서의 빈도, 26. 유형별 학습 활동의 빈도	협력관계
	도서관	38. 유형별 도서관 방문 빈도 39. 학교도서관의 유무	프로그램 개발
	텍스트 독서 전략	40. 독서전략, 41. 요약 전략	협력관계
	ICT에 대한 친숙도 및 활용도	52. 학교에서의 컴퓨터 활용 목적, 53. 학교에서의 유형별 컴퓨터 활용 빈도, 54. 유형별 컴퓨터 활용능력, 55. 수업 외의 컴퓨터 활용 시간, 56. 컴퓨터 활용의 가치에 대한 인식	프로그램 개발, 정보기술

nerships for Learning)을 제시하면서 학교도서관을 통한 정보활용교육(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과 도서관협력수업의 개념을 정착시켰다. 이러한 노력으로 미국의 학생들은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NCES 2004).

이상의 연구는 학교도서관이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학교도서관이 교육적 활동에 초점을 맞춰 운영되어야 하며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학교도서관에 대한 현안은 학교도서관교육에 대한 현안이며 학교도서관교육에 대한 현안은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에 대한 과정과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제반 환경에 관한 문제가 된다.

4. 학교도서관교육의 정책적 현안과 과제

우리나라 학교도서관계와 사서교사를 대표하는 단체인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가 2012년에 조사한 현안문제와 전략사업(김성준 2012), 한

국학교도서관연구회가 제시한 현안문제(한국학교도서관연구회 2013),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교육인적자원부 2002),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교육과학기술부 2008), 초·중등 독서 활성화 방안(교육과학기술부 2011), 도서관발전종합계획(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08)을 바탕으로 학교도서관교육의 현안을 정리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4.1 운영, 시설과 장서

학교도서관은 독서를 통한 인성교육은 물론 교수·학습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자료를 제공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학교교육의 핵심시설이며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기관으로서의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다(한국교육개발원 2012).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학교도서관 보유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표 8>과 같이 2012년 기준 초·중등학교의 학교도서관 보유율은 97.45%에 달하며, 설치율은 101%에 달한다. 학교도서관 보유율 증가와 더불어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추진과 학교도서관 운영비 및 장서구입비의 증가로 학교도서관

<표 7> 학교도서관교육의 주요 현안문제

주요 현안문제	세부내용
학교도서관 운영 및 관리(시설, 장서인적자원)	인식개선, 예산, 환경개선, DLS, 도서관 개방, 사서교사 정원, 비정규직 사서 증가, 사서 무자격자 근무
학교도서관교육	수업 모형 개발, 교과서 활용 방안, 자료개발(정보활용교육, 독서교육), 협동수업, 교육과정, 도서목록 제공, 평가(교육내용)
장학·지원·평가	전담부서 설치, 장학지도, 교육연구도서관, 평가(학교도서관)
관련법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 초·중등교육법 개정(사서교사 자격)
전문성 강화	사서교사 연수, 사서교사 양성, 연구회
학교도서관 협력	도협, 전교조, 교총, 단체협상, 지역협의회, 회보, 네트워크, 교사협력

〈표 8〉 연도별 학교급별 도서관 보유 학교수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학교수	도서관 보유 학교수	비율	학교수	도서관 보유 학교수	비율	학교수	도서관 보유 학교수	비율	보유 비율
2011	5,882	5,731	97.4	3,153	3,003	95.2	2,282	2,233	97.9	96.91
2012	5,895	5,787	98.2	3,162	3,019	95.2	2,303	2,264	98.3	97.45

주: 분교는 학교수에 포함되지 않음
출처: 2012년도 교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

관의 편의 시설이 개선되었고 장서량은 증가하였다.

〈표 9〉를 보면 2000년도에 초등학교도서관 좌석 1개를 학생 25.6명이 함께 사용하던 것이 2013년도에는 9.79명으로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0〉을 보면 2002년 학생 1인당 장서수가 5.50권에 불과하였지만 2013년도에 이르러서는 23.15권으로 대폭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학교도서관 보유율의 증가 등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는 학교 도서관이 일정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도서관 보유율이 증가하면서 학교도서

관 대출횟수와 대출자료수도 증가하였다. 〈표 11〉을 보면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이 시작된 2003년도에는 초등학교 학생 1명이 1년에 학교도서관에서 4.76번 대출하고 1회 대출시 1.72권의 책을 빌려던 것이, 2013년도에는 초등학교 학생 1명이 1년에 19.88번 대출하고, 1회 대출시 1.81권의 책을 빌려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도서관의 경우 1회 대출시 일반적으로 대출권수가 2권 이내로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면 1회에 이용하는 대출권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초등학교 학생 1명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횟수와 장서 활용도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9〉 연도별 학교급별 도서관 좌석당 학생수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좌석1개당 학생수
	좌석수	좌석당 학생수	좌석수	좌석당 학생수	좌석수	좌석당 학생수	
1980	74,857	75.6	87,854	28.1	110,382	15.4	-
1990	164,476	29.6	136,785	16.6	253,718	9.0	-
2000	157,030	25.6	137,011	13.6	225,055	9.2	15.32
2005	235,714	17.1	147,904	13.6	175,021	10.1	13.96
2007	266,823	14.4	153,941	13.4	164,461	11.2	13.22
2010	275,136	12.0	171,339	11.5	155,608	12.6	12.02
2012	284,605	10.4	175,455	10.5	170,492	11.3	10.66
2013	284,480	9.79	174,927	10.31	167,855	11.28	10.33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

<표 10> 연도별 학교급별 학생1인당 장서수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1인당 장서수
	장서수	1인당 장서수	장서수	1인당 장서수	장서수	1인당 장서수	
1980	2,747,683	0.5	3,412,727	1.4	3,817,826	2.3	-
1990	10,893,822	2.2	6,273,786	2.8	7,071,725	3.1	-
2000	14,761,564	3.7	11,093,005	6.0	11,118,438	5.4	4.65
2002	20,620,281	4.98	10,360,600	5.63	11,817,042	6.58	5.50
2003	24,828,526	5.95	11,414,982	6.15	12,491,923	7.07	6.25
2007	46,686,633	12.2	19,102,056	9.3	16,929,394	9.2	10.69
2010	64,055,427	19.4	27,925,729	12.2	22,913,090	10.5	15.88
2012	78,409,152	26.6	33,642,532	18.2	27,654,921	14.4	20.79
2013	84,065,061	30.2	35,704,608	19.8	30,259,518	16.0	23.15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

<표 11> 학교급별 학교도서관 이용 현황 및 예산액

급	항 목	연도						
		2002	2003	2007	2008	2010	2012	2013
초 등 학 교	학생수	4,138	4,176	3,830	3,672	3,299	2,952	2,784
	연간 대출자수	18,642	19,878	70,438	66,705	81,660	54,907	55,343
	연간 대출자료수	29,297	34,104	89,573	85,778	121,728	93,794	100,218
	학생 1인당 연간 대출 횟수	4.50	4.76	18.39	18.16	24.75	18.6	19.88
	학생 1인당 연간 대출 책수	7.08	8.17	23.39	23.36	36.90	31.77	36.00
	도서관 연간 예산	14,822	16,130	31,952	39,886	41,832	65,216	66,785
	학생 1인당 예산	3,582	3,863	8,342	10,862	12,680	22,092	23,989
중 학 교	학생수	1,841	1,855	2,063	2,039	1,975	1,849	1,804
	연간 대출자수	4,831	7,751	23,174	23,195	26,463	10,961	9,886
	연간 대출자료수	6,648	8,571	23,643	27,564	24,624	16,483	15,899
	학생 1인당 연간 대출 횟수	2.62	4.18	11.23	11.38	13.40	5.93	5.48
	학생 1인당 연간 대출 책수	3.61	4.62	11.46	13.52	12.47	8.91	8.81
	도서관 연간 예산	6,152	8,912	23,358	18,261	21,981	31,900	32,910
	학생 1인당 예산	3,342	4,805	11,321	8,957	11,131	17,252	18,241
고 등 학 교	학생수	1,796	1,767	1,841	1,907	1,962	1,920	1,893
	연간 대출자수	6,095	7,263	17,392	17,277	17,097	8,428	7,844
	연간 대출자료수	7,813	8,291	24,953	15,610	16,177	12,622	12,357
	학생 1인당 연간 대출 횟수	3.39	4.11	9.45	9.06	8.71	4.39	4.14
	학생 1인당 연간 대출 책수	4.35	4.69	13.55	8.19	8.24	6.57	6.53
	도서관 연간 예산	5,878	6,895	20,646	16,701	20,496	30,666	30,802
	학생 1인당 예산	3,274	3,903	11,213	8,758	10,445	15,971	16,269

- 주: 1. 고등공민학교, 방송통신고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 부설학교, 산업체 특별학급 제외
 2. 학생수, 연간 대출자수 및 대출자료수, 학생1인당 연간 대출 횟수 및 책수는 천단위로 표시
 3. 도서관 연산 예산은 백만단위로 표시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학교도서관 보유율 및 장서수, 좌석과 같은 시설개선, 이용횟수와 대출권수 등의 지표는 학교도서관이 공교육의 핵심 기반 시설로서 자리매김 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학교도서관 시설이 좋아지고 책이 많아졌다고 해서 도서관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특히 학교도서관 지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장서에 대한 이용자들의 낮은 만족도는 장서의 질 개선과 함께 장서활용의 전문성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 교장/교감, 일반교사,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수행된 학교도서관 진행 사업에 대한 만족도조사에서 도서관장서가 다른 분야보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도 단순한 장서량의 증가만으로는 이용자를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있다(곽동철 2009). 또 이는 학교도서관 개선점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읽을 만한 책이 부족하다는 응답과도 일치한다(이순남 2012). 학생들은 자신들이 보다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교사와 부모에게 '좋은 책에 대한 소개와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가장 많이 바라고 있고, 이들이 도서를 선택할 때 실물자료를 보고 선택하는 행태를 고려하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수서 담당자는 장서선정의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2010년도보다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학교도서관 보유율과 장서수, 시설 개선, 예산이 모두 증가하였어도 대출이용횟수와 대출자료수가 2007년도와 2008년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학교도서관의 시설과 자료와 같은 양적인 자원의 증가만으로는 학교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을 나타낸 것이다. 도서관서비스가 단위학교에서는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므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인적자원의 전문성과 학교도서관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향후 학교도서관 진흥 정책은 양적인 부분보다는 질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어야 한다.

4.2 인적자원

학교도서관의 목적은 학교교육목표 달성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이는 학교도서관이 교육에 초점을 맞춰 운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교육의 내용을 교수하고 학습하는 주체는 교사와 학생이다. 시설이 현대화되고, 장서량과 학교도서관 예산이 증가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자생적으로 책을 읽고 마음을 정화하며 창의적인 다양한 발상을 하지는 않는다. 학생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정보활용능력이 향상되지는 않는다. 학생들에게는 전인적 교육활동을 통해 지덕체를 갖춘 인간으로 이끌어줄 교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학교에는 학교도서관 교육을 수행할 사서교사가 별로 없다. 학교도서관 담당교사와 학교회계직 사서(이하 학교사서)³⁾에게 학교도서관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게 하거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업무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적자원으로는 학교도서관 교육과정 운영에 한계가 있고 결국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게 된다.

3) 회계직 사서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대부분의 학교에 사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이들만을 한정하여 학교사서라는 명칭으로 표현하였음.

4.2.1 배치

학교도서관교육에 있어서의 가장 큰 현안은 역시 사서교사 배치율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표 12>와 같이 사서교사의 배치율은 6.1%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학교사서는 38.14%에

이른다. 여기에 사서 무자격 직원까지 포함시키면 학교도서관 인적자원이 비정규직 사서와 직원으로서의 사서에게 심각하게 편중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14>를 보면 2012학년도보다 2013학년도

<표 12> 사서교원 배치율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배치율(%)	3.9	3.9	3.9	4.2	4.6	4.5	14.4	14.4	13.8	6.1	6.2	6.1

주: 배치율=배치인원 / 학교수 × 10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표 13> 학교사서 배치율

구분 \ 연도	2002	2003	2007	2008	2013
사서수(명)	2,432	2,868	3,077	3,191	4,413
배치율(%)	23.56	27.36	27.74	28.42	38.14

주: 학교수는 초·중·고·특수학교를 포함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표 14> 사서교사 1인당 학생수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전체	
	사서교사수	1인당 학생수	사서교사수	1인당 학생수	사서교사수	1인당 학생수	사서교사수	1인당 학생수	기간제 포함	1인당 학생수
2002	16	258,648	16	115,064	116	15,479	148	52,533	-	-
2003	35	119,304	33	56,201	131	13,485	199	39,180	-	-
2004	49	84,004	43	42,968	147	11,881	239	32,620	-	-
2005	57	70,575	45	37,938	154	11,447	256	30,455	291	26,792
2006	121	32,438	98	20,963	203	8,748	422	18,427	463	16,795
2007	169	22,663	119	16,245	244	7,547	532	14,539	577	13,405
2008	209	17,570	132	14,562	304	6,273	645	11,811	695	10,961
2009	214	16,235	134	13,746	304	6,466	652	11,422	703	10,593
2010	227	14,533	131	13,343	324	6,057	682	10,610	743	9,739
2011	227	13,799	146	10,856	329	5,908	702	9,953	803	8,701
2012	228	12,947	143	10,877	318	6,038	689	9,755	798	8,423
2013	228	12,211	143	10,136	303	6,249	674	9,972	815	8,247

주: 1. 학교 및 학생에 고등공민학교, 방송통신고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 부설학교, 산업체 특별학급 제외.

2.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에 사서교사 1인당 학생수가 증가하였고 정규 직 교원이 아닌 비정규직 교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독서교육활성화를 위해 사서교사를 충원해야 한다는 학교현장의 목소리와 인성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로 사서교사를 충원해야 한다는 교원단체의 목소리를 무시한 결과이다. 학교도서관의 관리적 업무를 비롯하여 독서교육 및 정보 활용 교육, 도서관 활용 수업(도서관 협력수업) 등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과 정보 활용 능력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서교사(한국교육개발원 2008)를 확충하여 학교도서관교육 기회를 학습자에게 균등하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기본법 제4조의 교육의 기회균등 조항을 실현해야 한다.

학교사서는 2002년도 2,432명에서 2013년도 4,413명으로 증가하여 배치율이 23.56%에서 38.14%로 향상되었다. 그러나 학교사서가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이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학교사서가 단위학교 구성원들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사서교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학교의 학급 규모에 따라서 사서 정규직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학교도서관의 현안으로 떠오른 사서무자격자의 사서업무 수행은 사서에 대한 인식을 저하시키고 사서의 전문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4.2.2 전문성

사서교사 양성과정에 학교도서관교수·학습을 위한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사서교사의 교육

내용인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 또 초·중등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교과와 교육내용과 학교도서관의 자원을 융합하여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질을 갖추도록 대학에서 사서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사서교사에 대한 컨설팅 장학과 평가를 통해 사서교사가 교육과정과 교육성과에 대한 책무성을 갖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서교사의 전문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도서관진흥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된 교원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사서교사가 전문가로 인정받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다. 사서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관련한 교육과정과 양성, 장학, 지원체계, 법적 문제는 각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학교도서관의 주요 기능은 교육이지만 학교도서관이 설비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시설물임으로 이에 대한 관리와 더불어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는 담당교원이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로 학교사서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현장에 4,413명의 학교사서가 배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학교사서의 역량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 학교사서에게 재교육과 자기 연찬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서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학부모나 학생, 나아가 교사 독서 동아리 운영의 업무, 학교도서관 내에서의 독서 및 정보이용지도, 추천도서 목록 제공, 책읽어주기 등의 프로그램을 학교상황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에는

학교도서관 담당 교사를 두어야 한다. 학교사서가 학교도서관 업무를 전적으로 맡고 있더라도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교육적 활동, 즉 독서교육 과정과 정보활용교육과정을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학교도서관 운영 업무는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은 물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교원들과의 협력적 관계를 위해서라도 교사 담당자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공교육 행위에 대한 불확실성도 낮춰야 한다. 결국 학교도서관담당교사제는 학교사서를 지휘·감독하기 위한 제도로서가 아니라 학교도서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교사들과의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과정으로서 필요하다.

4.2.3 양성과정

학교도서관교육을 위해서는 자질 있는 사서교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서교사 양성체제와 양성과정의 문제점으로 배치된 사서교사가 학교현장에서 학교도서관교육과정을 운영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교육목표를 달성한다. 학교도서관은 학교의 시설물로서 교육과정을 통해 운영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학교도서관교육과정도 학교교육과정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문제는 신규 사서교사가 학교교육과정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학교도서관교육과정으로 사서교사가 독서교육과정과 정보활용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하였을 때 사서교사는 어떤 절차에 따라서 무엇을 목표로 어떤 수업시간에 어떤 교육내용으로 교수해야 하는지 모른다. 결국 신규 사서교사들은 학교의 교육목표와는 다른 목표를 가지고 학교교육과정

과는 동떨어진 학교도서관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이들은 현장에서의 수년간의 경험과 자기연찬을 통해서야 비로소 학교교육과정으로 학교도서관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신규 사서교사들이 교육과정 운영 절차를 몰라서 교육과정 운영을 미숙하게는 할 수 있어도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행위를 미숙하게 하는 것은 사서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한다. 특히 교사의 직급으로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수·학습의 전문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사서교사의 양성체제와 대학교 교육과정에 기인한다.

사서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범대의 문헌정보교육과를 졸업하거나 일반대학의 문헌정보학과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해야 한다. 사서교사 학부 양성기관으로 2013년 기준 문헌정보교육과는 1개 대학에 문헌정보학과⁴⁾는 30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다(교육부 2013). 문제는 교직과정을 두는 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서 사서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데 있다. 이는 사서교사 교직과정 이수자의 승인 비율이 입학정원의 10%로 감축된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 26명이 입학정원인 문헌정보학과에서는 1년에 2명만이 사서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즉 문헌정보학과에서 2명만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가 어렵고 이는 예비 사서교사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또 사서교사 자격이 초등과 중등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자격의 전문성이 결여되는 점도 문제이다. 초등과 중등은 교육

4)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 문헌정보학전공, 도서관학과를 포함함.

과정도 다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 사범대를 통해 중등교육과정에 대한 사전지식을 쌓은 사서교사를 배출한다고 하더라도 초등교육과정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이 초등학교에 배치되는 사서교사가 전문성을 갖겠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사서교사의 자격을 초등과 중등으로 구분하고 학교급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서교사 교직과정 이수자의 승인 비율을 상향해야 하며, 사범대와 교육대에 문헌정보학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단위학교에 많은 학교사서가 근무하고 있다. 자신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키우는 것은 사서로서의 의무이자 국가의 책무이다. 학교사서가 학교도서관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사서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국가는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기회 제공의 일환으로 교육대학원의 사서교육전공(문헌정보교육전공) 과정이 있다. 그러나 2001년 이후에 설치인가 된 모든 전공은 반드시 현직 교직원에 한하여 입학하는 조건으로 승인되어(교육과학기술부 2013, 109) 현직 교직원인 아닌 학교사서는 2001년 이후 설치인가 된 교육대학원에 사서교육전공으로 입학할 수 없다. 2013학년도에 2급 정사서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교원자격증을 미소지한 현직 교직원이 아닌 학교사서가 신규로 사서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양성 과정의 교육대학원은 11곳이다(교육부 2013). 이는 4천명이 넘는 학교사서에 비해서는 양성 과정의 대학원이 턱없이 부족하며 또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할 때, 학교사서가 사서교사 자격증

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책이 필요하다.

학교도서관은 사서교사만의 전유 공간이 아니다. 초·중등교사들은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교육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사서교사와 함께 협동수업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이처럼 학교도서관은 사서교사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교에서 학교도서관 활용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문제이다. 이렇게 양성된 초·중등교원은 현장에서 근무하더라도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교육활동을 하지 않거나 도서관의 시설과 자료를 이용하는 수준의 단편적인 교육활동만을 수행하게 된다. 예비 교원들이 자신의 전공과목과 학교도서관 자원을 융합하여 교수·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대와 사범대 교직과정에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과정을 신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나 시·도교육청수준 교육과정에 학교도서관교육의 내용인 정보활용교육과 독서교육을 명시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높이고 문제 해결력을 높여 학생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인성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에 학교도서관교육 과정과 내용들을 명문화시키고 38개 범교과학습 주제에도 포함시켜야 한다. 또 ICT나 정보통신활용능력과 연계하여 정보활용교육을 단위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4.3.1 교육과정

초·중등교육법 제4장 제23조는 학교편의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이다. 학교는 학교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학교교육의 출발점이 교육 과정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초·중등학교에서 편성, 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더불어 동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과학기술부 2012)에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외에도 시·도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과 학교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초·중등교육과정은 2009개정교육과정과 2007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다. 2013학년도부터 적용되어 2016학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2009개정교육과정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9 개정교육과정의 특징은 <표 15>와

같다.

교육과정이 2007 개정에서 2009 개정으로 바뀌었지만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어디에서도 ‘도서관’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다만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해설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기능 예시 항목,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해설(교육과학기술부 2010)에서 시·도교육청이 단위학교에 제공해야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자료 목록 예시 항목과 동아리 활동 예시 항목에 도서관이 포함되어 있다. 도서관도 학교 시설물의 하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교육목적과 교육내용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는 것이다. 이는 도서관이라는 시설물에 대한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서관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초·중등 교육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제는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교육인 정보활용교육이 국가수준교육과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독

<표 15> 2009 개정교육과정의 특징

구분	특징
비전	○ 학습의 효율성 제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인성교육 추구, 학생의 핵심역량 강화, 학교의 다양화 유도를 통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
초등학교	○ 1~2, 3~4, 5~6학년군과 교과군으로 구성하고 시간배당은 연간 34주 기준, 2년간의 기준수업시수임 ○ 우리들은 1학년 폐지,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으로 반영 ○ 정보통신활용교육, 보건교육, 한자교육 등을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하여 지도
중학교	○ 1~3학년군과 교과군으로 구성하고 시간배당은 연간 34주 기준, 3년간의 기준수업시수임 ○ 집중이수를 통해 학기당 이수과목을 8개 이하로 편성·운영 ○ 선택과목: 한문, 정보, 환경, 생활외국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 선택과목으로 「진로와 직업」을 신설하고, 진로교육 강화
고등학교	○ 교과 영역을 기초, 탐구, 생활·체육, 생활·교양으로 구성 ○ 고교 전과정을 선택교육과정으로 운영 ○ 집중이수를 통해 학기당 이수과목을 8개 이하로 편성·운영
공통	○ 재량활동, 특별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변환 ○ 민주시민교육, 경제교육 등 35개 요소에 녹색교육, 한자교육, 한국문화사교육 추가

서교육은 국어교과목에 치우쳐져 있다는 것이다. 2009개정교육과정은 기존의 교육과정과는 다르게 국가 지원 사항과 교육청 수준 지원 사항을 종합하여 명시하고 있다는 점은 국가나 교육청에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하여 교과별 평가 기준의 개발, 평가 방법·절차·도구 등의 개발, 연구학교 운영, 각종 자료의 연구 개발, 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인정과 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고 지원해야 함을 명문화 한 것이다. 이는 반대로 국가수준과 시·도교육청수준에 명시되지 않은 개별 교육과정은 단위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기 어렵다는 의미가 된다. 사서교사가 학교교육과정으로 학교도서관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가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09개정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된다. 교과(군)는 국가수준교육과정에 정해져 있지만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교육과정은 학교의 자율성 강화와 더불어 단위학교에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독서교육과정이나 정보활용교육과정도 단위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국가수준 혹은 시·도교육청수준의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에 예시로도 설명되어 있지 않은 교육과정을 학교교육 운영위원회와 학교장이 선정하여 편성·운영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국가수준이나 시·도교육청수준의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에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을 명시해야 한다. 38개의 범교과학습 주제로 '독서(생활)교육'이나 '정보활용교육'을 포함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고등학교교육과정에서는 국어교과(군)의 과목으로 「독서와 문법Ⅰ」, 「독서와

문법Ⅱ」이 있지만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독서교육과는 그 성격이 다르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독서관련 교과목이 없으므로 독서교육 역시 범교과학습 주제에 포함시켜야 한다.

4.3.2 교과서

정보활용교육 등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 목표, 내용 영역 선정, 성취 기준을 정하고 교수·학습을 계획하며 그에 맞는 자료를 개발하고 적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단위학교가 정보활용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도서관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생과 교사의 학습·교수활동에 대한 지원 중 하나로 관련 교과서와 지도서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이 있다.

정보활용교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교과서로는 1996년 인정도서로 발행된 「정보와 매체」, 2002년 인정도서로 「정보와 도서관」, 2011년 인정도서로 「도서관과 정보생활」이 있다(김성준 2011). 이러한 교과서 발행은 초·중등학생들에게 정보활용교육을 적용시켜 지식정보사회에서 학생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건전한 정보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일 것이다. 그러나 교육 목표와 교육 영역을 근거로 한 상세화 된 교육 내용이 포함된 지도서가 없다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는 개발된 교과서를 활용하여 정보활용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가 교수·학습 모형을 이해하고, 단원과 차시별 지식·기능·태도에 대한 목표를 정해야 하며,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주요 내용과 활동을 직접 설계해야 함은 물론 지도의 유의점, 보

충·심화 학습 자료, 참고 자료, 평가 자료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학교급과 학년, 교과,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과서와 지도서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단위학교에서 교과서를 개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국가나 시·도교육청차원에서 학교도서관교육 관련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초·중등교육과정에 선택과목과 보통교과로 '도서관과 정보생활'이나 '도서관과 독서생활'과 같은 교과목 명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교원자격검정령시행령에서 사서교사의 표시과목에 '독서'나 '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명시하는 것도 사서교사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4.3.3 정보통신활용능력

이병기(2012)의 PISA 설문지와 학교도서관 변인의 비교를 살펴보면, 학교도서관이 독서교육과 ICT활용교육을 통하여 학업성취도를 향상시켜야 함을 알 수 있다.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는 정보통신기술로 정보통신기술 소양교육과 정보통신기술 활용교육으로 구분한다. 정보통신기술 소양교육은 IT 기능을 습득하고 사용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 반면 정보통신기술 활용교육은 각 교과의 교수·학습활동에서 정보통신기술을 도구나 매체로 활용하는 교육이다. 사서교사가 학생들에게 정보통신기술을 가르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통신을 통하여 정보에 접근하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2009개정교육과정에서도 세계인으로서 정보통신 활용능력이 필요하며, 정보통신활용교육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학교도서관에서도 도서를 활용한 교육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에 접근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학교도서관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정보활용교육과정에 정보통신활용능력과 ICT활용교육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2009 개정교육과정에 정보활용교육과정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활용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사서교사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4.4 장학체계 및 지원체계

4.4.1 장학체계

초·중등교육법 제7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장학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장학은 '교육 활동의 개선을 위한 모든 지도·조언 활동'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장학의 궁극적 목적은 '수업 개선(improvement of instruction)'에 있으므로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학 지도는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에 초점이 있다고 하겠다. 종합하면, 장학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들을 교육하는 임무'를 가진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가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목표와 내용, 교수·학습 구성과 방법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지도와 조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단위학교의 시설물 중에 하나인 학교도서관은 학교에 포함되며 학교도서관이 관할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하

였을 때, 학교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장학지도가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학의 개념을 학교도서관 영역에 적용시켜 보면, 학교도서관 장학이란 학교도서관 교육을 수행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모든 교육활동에 대한 지도·조언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학교도서관 교육에 대한 장학체계의 부재로 사서교사나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을 진행하는 교사가 학교도서관 교육에 대한 장학지도를 받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장학지도의 부재는 2007교육과정이 2009교육과정으로 개편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서교사가 국가수준이나 시·도교육청수준의 교육과정을 이해하지 못하여 학교도서관교육과정이 상위수준의 교육과정들과 단절되는 현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것은 학교도서관이 학교는 물론 시·도교육청이나 국가수준의 교육 목표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자의적이고 독립적인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결국 학교도서관은 설립 목표와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

2010년 9월에 전국의 178개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바뀌어 기존의 감독 위주의 장학에서 현장지원 위주의 컨설팅 장학기능으로 변화되었으며, 다양한 학교자율화, 다양화 정책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2).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그 명칭이 변하고, 가르친다는 개념을 포함하는 장학지도가 장학컨설팅으로 변화한 것은 장학컨설팅을 통해 교원들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현장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방법적 접근의 변화이다. 대부분의 시도에서 학교 현장 중심의 컨설팅 장학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학교도서관 현장에 대한 컨설팅 장학은 미흡한 실정이다. 그것은 시·도교육청에 학교도

서관교육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서교사를 장학 컨설팅할 수 있는 장학사가 전무하며, 그로 인하여 학교도서관 장학컨설팅 계획이 부재하는 등, 시·도교육청의 장학컨설팅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부에 학교도서관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한 현장 교원 출신이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시·도교육청에서 사서교사를 장학컨설팅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교육부의 독서교육과 학교도서관 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 또한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시·도교육청이 하루빨리 사서교사를 장학 컨설팅하기 위한 장학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장학은 현장 전문가인 교사가 수업 개선에서 자발성과 자율성을 갖도록 촉진하는 활동이므로(송기호 2011), 교원 출신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야 독서교육, 정보활용교육은 물론 협동수업이 국가수준, 시·도교육청수준 그리고 학교수준의 교육과정과 함께 운영될 수 있으며, 사서교원의 교육역량 강화와 전문성 신장을 통해 공교육의 내실화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

4.4.2 지원체계

학교도서관은 교수학습지원센터로서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보통 1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도서관이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즉 1인 운영체제의 학교도서관은 시설물의 유지와 관리, 대출과 반납, 이용안내 정도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1인 체제의 도서관에서는 무엇보다 지원체계 정립이 중요하다. 장학사가 학

학교도서관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교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장학을 하더라도 시간상의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으며 초·중·고등학교라는 학교급에 따른 독서와 정보활용교육 등의 내용범위를 모두 포괄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이것은 학교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도서관발전종합계획(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08)은 도서관 협력네트워크를 통한 통합협력 강화와 학교도서관 진흥재단 설립을 통해,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교육인적자원부 2002)은 장학지도(체계)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부의 지원팀을 통해, 학교도서관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서관 연계 프로그램들을 학교도서관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의 범위와 규모, 또 특정지역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이 학교도서관협력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지만 현장 사서교사들의 요구와 같은 수준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역시 학교도서관 교육과 관련한 연구가 미온한 상황이다. 시·도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도서관 지원센터는 행정적인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학교도서관지원센터에 대한 명칭을 학교도서관 학습·교수 지원센터로 변경하고 기존의 행정적인 지원에 더하여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체제로 개편시켜야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서도 학교도서관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교과서 개발에 대한 지원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서도 DLS(Digital Library System)의 관리기능에 대한 지원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통해서도 어린이청소년 도서목록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4.5 법적 근거 마련

학교도서관교육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제반 환경의 정비가 필요하다. 가장 문제가 되는 인적자원 문제를 비롯하여 교육내용, 장학체계, 교육과정에 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시설, 장소, 예산만으로는 학교도서관 교육을 통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실현할 수 없다. 독서교육 활성화를 통한 인성함양과 창의력 개발, 올바른 정보활용교육 등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적자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정원에 관한 법적 기준이 개정되어야 한다. 인적자원과 관하여 학교도서관진흥법은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인적자원의 배치가 임의조항이라는 것이며 둘째는 인적자원의 직위가 구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이 학교도서관법을 통해 사서교사의 배치를 강제규정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급과 학급 수에 따라 사서교사와 사서를 구분하여 명시한 것과도 대조적이다. 인적자원의 배치는 의무조항으로 명시해야 하며 인적자원의 자격에 따라 배치기준과 업무범위를 규정해야 한다. 공교육 시설로서 학교도서관교육과정이 운영되고 교육성과를 산출되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할 때 학교도서관 인적자원자원으로는 교사의 직급을 가진 사서를 배치되어야 하며 사서교사에 대한 배치기준을 최우선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특히 인적자원의 배치를 자격과 직위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사서교사나 실기교사, 사

서를 묶어 학생 1,500명당 1명으로 산정한 학교 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은 개정되어야 한다. 이는 교원의 전문성 보장을 명시한 교육기본법 제5조와 교원과 직원의 역할을 구분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와도 상충되기 때문이다. 교원으로서 사서교사만의 총정원 산정 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학교도서관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독서문화진흥법이 초·중등학교에도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독서교육 담당 교사 배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독서문화진흥법에 학교도서관이 언급되어 있고 학교도서관이 독서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독서문화진흥법과 학교도서관진흥법을 연계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 독서문화진흥법과 학교도서관진흥법의 공통된 목표인 '독서문화'를 교육기본법에도 명문화하여 학교도서관교육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사서실무사와 같은 사서 무자격자의 사서 명칭 사용으로 학생, 학부모는 물론 교직원들도 유자격 사서와 무자격 사서를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구성원들의 사서 직급에 대한 혼동은 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추락시키고 있다. 이에 사서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도서관법이나 학교도서관진흥법에 신설해야 한다.

학교도서관진흥법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시·도교육청에 학교도서관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행정적인 지원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조항을 강제조항으로 개정해야 하며, 우선적으로는 시·도교육청에 학교도서관교육 담당 장학사를 배치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명시된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학교도서관학습·교수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실질적으로 학교도서관이 학습·교수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개정교육과정에 정보통신활용교육은 명시되어 있으나 도서와 정보통신을 모두 활용하는 정보활용교육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단위학교에서 도서를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을 소홀히 하였다. 초·중등교육과정에 정보활용교육을 명시하여 초·중등학교에서 도서와 정보통신을 모두 활용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범교과 학습주제에도 정보활용교육과 독서(생활)교육을 명시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명시해야 한다. 중학교 선택 과목과 고등학교 보통 교과 생활·교양 영역의 일반과목으로 '도서관과 정보생활', '도서관과 독서(생활)'을 명시하여 학교도서관교육내용과 교육과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2012년 기준 초·중·고등학교의 학교도서관 보유비율이 97.45%에 이르고, 학생1인당 장

서수가 2002년 5.50권에서 2013년 23.15권으로 증가하였으며, 학교도서관 좌석1개당 학생수는 2000년 15.32명에서 2013년 10.33명으로 감소하였다. 학교도서관 예산액은 학생 1명을 기준으로 2002년 3,454원에서 2013년 20,134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최근10년 동안 시설과 장서 및 예산 지표 모두 개선되었다. 사서교사는 2002년 148명에서 2013년 674명으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학교사서는 2,432명에서 4,413명으로 증가하였다. 인적자원에 대한 지표도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교육부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이 완료된 다음해인 2008년도의 학생1인당 연간 학교도서관 대출이용 횟수는 14.07회였으나 2013년에는 11.27회로 하락하였다. 이 기간에 학생1인당 장서량은 11.28권(195%)이 증가하였고, 학생 1인당 학교도서관예산액은 10,309원(205%)이 증가하였다. 사서교사는 29명이 증가하였고, 학교사서는 1,222명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지표는 시설과 장서의 개선만으로는 학교도서관을 진흥하고 학교도서관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교육적 성과를 산출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이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정책이 양적인 자원 증가보다는 질적인 자원 증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음을 역설한 것이다.

교육의 질은 인적자원의 전문성으로부터 시작된다.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 등을 수행하는 학교도서관교육의 전문가인 사서교사의 배치율이 6.1%밖에 되지 않는 것은 문제이다.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실현하는 주체인 사서교사의 배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서교사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여 교육성

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양성과정을 개선하고 장학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장학은 교육활동에 대한 지도·조언임으로 학교도서관교육 현장 전문가 출신이 담당하도록 하고 시·도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도서관지원센터는 학교도서관이 학습·교수지원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개편시켜야 한다.

국가 및 시·도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에 학교도서관교육 내용을 명시하여 단위학교에서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위학교에서 학교도서관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시·도교육청의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에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을 명시하고 범교과학습 주제로 '독서(생활)교육'과 '정보활용교육'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선택과목과 보통교과로 '도서관과 정보생활', '도서관과 독서생활'을 추가하고 학교급이나 학년별로 활용가능한 교과서와 지도서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나아가 사서교사의 자격을 초등과 중등으로 구분하고 교원자격검정령시행령에 사서교사 표시과목으로 '독서'나 '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

사서교사와 학교사서의 정원기준과 업무범위를 구분하고 그에 따른 배치기준 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단위학교에 6.1% 배치되어 있는 사서교사와 38.14% 배치되어 있는 학교사서의 배치율을 모두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사서가 38%이상을 차지하며 사서 무자격의 학교도서관 근무도 상당한 현실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만 증가시키는 것으로는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 양질의 인적자원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직

무분석을 통해 학교사서의 역할을 정립시킬 필요가 있으며, 단위학교 운영에 학교사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사서를 지원하는 체계와 학교사서가 학교교육과정에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앞서 지적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관련법을 개정시켜야 한다. 특히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진흥을 위한 법적 규정에 머무르지 않고 학교도서관교육 내용을 포함한 제반 조항의 신

설과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을 때 학교도서관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제정된 학교도서관법에는 인적자원의 정원과 배치기준, 자격에 따른 직무 규정, 교육내용별 조항 신설, 장학 및 지원, 평가에 대한 규정 등을 명시하여 학교도서관이 공교육의 기반시설로서 교육의 책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1] 강대중, 염시창. 2013. PISA 2009 읽기성취도 데이터를 활용한 학교효과 분석. 『교과교육학연구』, 17(2): 323-345.
- [2] 광철완. 2009. 『학교도서관 진흥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효과분석.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3] 교육과학기술부. 2013. 『201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4] 교육과학기술부. 201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5] 교육과학기술부. 2011. 『초·중등 독서활성화 방안』.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6] 교육과학기술부. 2010.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해설』. [online] [cited 2014. 1. 2.] <<http://www.moe.go.kr>>
- [7] 교육과학기술부. 2008.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8] 교육부. 2013. 『2013 교원양성기관 현황』. [online] [cited 2014. 1. 2.] <<http://www.moe.go.kr>>
- [9] 교육인적자원부. 2002.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10] 국가법령정보센터. [online] [cited 2013. 9. 1.] <<http://www.law.go.kr>>.
- [11] 김대석. 2011. 학교 교육과정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PISA 2009 한국의 읽기영역에서 교과 및 교과의 활동과 성취도 등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29(4): 161-185.
- [12] 김성준. 2012.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2): 203-225.
- [13] 김성준. 2011. 학교도서관의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3): 271-292.
- [14] 김용하 외. 2011. 『OECD 국가의 복지 지표 비교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5] 대검찰청. 통계자료 범죄분석. [online] [cited 2013. 10. 5.] <www.spo.go.kr>

- [16]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08.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서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17] 송기호. 2011. 시·도교육청 수준의 독서 및 도서관 통합 장학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 문헌정보학회지』, 45(3): 49-68.
- [18] 신우성. 2009. 『미국처럼 쓰고, 일본처럼 읽어라』. 서울: 어문학사.
- [19]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3.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보고서』. 서울: 한국방정환재단. [online] [cited 2013. 10. 2.] <www.korsofa.org>
- [20] 옥현진, 김경희. 2011. PISA 2009 읽기 영역 결과 분석 연구. 『국어교육』, 134: 383-407.
- [21] 이병기. 2012.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의 독서영역과 AASL의 21세기 학습자 기준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3): 196-216.
- [22] 이병기. 2009. 미국 학교도서관 기준 관련 문서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의 구조와 내용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3): 203-223.
- [23] 이지연. 2009. 『학교도서관 이용과 학업 능력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24]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 서울모임. 2012. 『북미 학교도서관을 가다』. 서울: 우리교육.
- [25]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2. 『2012 청소년 통계』. [online] [cited 2013. 9. 27.] <<http://kostat.go.kr>>
- [26] 통계청. 2011. 『사회조사보고서』. [online] [cited 2013. 9. 29.] <<http://kostat.go.kr>>
- [27] 한국교육개발원. 2012. 『2012 한국의 교육지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28]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2011년 국민독서실태조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29]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30] 한국중고생 책상 앞에는 오래 앉아 있지만... 2008. 『동아일보』. 10월 31일, 제15면.
<http://news.donga.com/3/all/20081031/8651245/1>, 한국중고생 책상 앞에는 오래 앉아 있지만... 학습 효율성 OECD 30국중 24위. [online] [cited 2013. 9. 27.] <news.donga.com>
- [31] 한국출판연구소. 2010. 『2010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32] 한국출판연구소. 2009. 『2011년 국민독서실태조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33] 한국출판연구소. 2008. 『국민독서실태조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34] 한국학교도서관연구회. 2013. 『사서교사 업무 관련 정책 제안서』. [online] [cited 2013. 10. 6.] <<http://cafe.daum.net/kslrs>>
- [35] Lance, K. C., Hamilton-Pennell, C., Rodney, M. J., Petersen, L. and Sitter, C. 1999. Information Empowered: The School Librarian as an Agent of Academic Achievement in Alaska Schools. Alaska State Library. [online] [cited 2013. 11. 7.] <<http://www.library.state.ak.us/pdf/anc/infoemxs.pdf>>
- [36] Lance, K. C., Rodney, M. J. and Hamilton-Pennell, C. 2000. Measuring up to Standards: The Impact of School Library Programs & Information Literacy in Pennsylvania Schools.

- Greensburg, PA: Pennsylvania Citizens for Better Libraries. 재인용: 이지연. 2009. 학교도서관 이용과 학업 능력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37] NCES(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04. 『School Library Media Centers: Selected Results From the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of 2002 (ELS:2002)』. [online] [cited 2014. 1. 2.] <<http://nces.ed.gov/pubs2005/2005302.pdf>>
- [38] OECD PISA. [online] [cited 2013. 9. 2.] <<http://www.oecd.org/pisa/>>
- [39] OECD PISA. [online] [cited 2013. 9. 2.] <<http://www.oecd.org/pisa/pisaproducts/44455820.pdf>>
- [40] Lee In-Hoi and Kim Min-Hee. 2013.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Reading Literacy in PISA 2009. 『교육종합연구』, 11(1): 1-20.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ang, Dae jung and Yum, Si chang. 2013. "An Analysis of School Effects Based on Reading Achievement Data from PISA 2009." *Journal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2): 323-345.
- [2] Kwak, Chul-Wan. 2009. *satisfaction and benefit analysis on 『School Library Promotion Project』*. Seoul: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3]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3. *2013 Practical Manual of teacher qualification*. Seoul: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4]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2. *National Curriculum Frameworks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Seoul: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5]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1. *The reading activation plans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eoul: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6]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0. *National Curriculum Guide for Creative Experience Activity Curriculum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online] [cited 2014. 1. 2.] <<http://www.moe.go.kr>>
- [7]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8. *Master Plan for School Library Promotion*. Seoul: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8] Ministry of Education. 2013. 2013 Status of teacher education institutions. [online] [cited 2014. 1. 2.] <<http://www.moe.go.kr>>
- [9]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2. *The School Library Revitalization Project*. Seoul: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10]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online] [cited 2013. 9. 1.] <<http://www.law.go.kr>>.
- [11] Kim, Dae-Seok. 2011. "Relationship between curricular &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students achievements."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9(4): 161-185.
- [12] Kim, Sung-Jun. 2012. "A Study on the Strategic Plan of Korea School Library Associ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2): 203-225.
- [13] Kim, Sung-Jun. 2011.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Literacy Textbook, School Library and Information Literacy." *Th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3): 271-292.
- [14] Kim, Yong ha et al. 2011. *Comparative study of the welfare indicators in OECD countries*. Seoul: 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15] Supreme Prosecutor's Office. Analysis of Crime Statistics. [online] [cited 2013. 10. 5.] <www.spo.go.kr>
- [16]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2008. *The Comprehensive Library Advancement Plan(2009-2013)*. Seoul: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 [17] Song, Gi Ho. 2011. "A Study on Building Integrated Supervision Organizations of Reading and Libraries Under City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3): 49-68.
- [18] Shin, Sung Woo. 2009. *Read like Japan and Write down like the United States*. Seoul: Oumoonhaksa.
- [19]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Studies Yonsei University. 2013. *The Survey report for Korean children Well-Being index and Its international Comparison with other OECD Countries*. Seoul: Korea Foundation Bang Jeong Hwan. [online] [cited 2013. 10. 2.] <www.korsofa.org>
- [20] Ok, Hyoun Jin and Kim, Kyung Hee. 2011. "An Analysis of the Result of Reading Literacy in PISA 2009."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134: 383-407.
- [21] Lee, Byeong-Ki. 2012. "The Comparative Analysis of PISA Reading Domain and AASL Standards for the 21st-Century Learne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3): 196-216.
- [22] Lee, Byeong-Ki. 2009. "Study on the Structure and Contents Analysis of America New School Library Standards Sets Standards for the 21st-Century Learner."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3): 203-223.
- [23] Lee, Jee-Yeon. 2009.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School library use and academic skills*. Seoul: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24] The National School Library Teacher Meeting of Seoul. 2012. *Go to school Library in North*

- America*. Seoul: Urigyoyuk.
- [25]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2. *2012 Youth Statistics*. [online] [cited 2013. 9. 27.] <<http://kostat.go.kr>>
- [26]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1. *Social Research Report*. [online] [cited 2013. 9. 29.] <<http://kostat.go.kr>>
- [27]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2012. *2012 educational indicators in Korea*. Seoul: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 [28]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2012. *2011 National Reading Survey*.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29]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2. *2012 internet addiction situation Survey*. Seoul: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30] Korean Secondary School Students has long been sitting at the desk, but... 2008. *the Dong-A Daily News*, October 31, article 15 side. <http://news.donga.com/3/all/20081031/8651245/1>, Korean secondary school students has long been sitting at the desk, but... 24th countries in the efficiency of learning in OECD 30. [online] [cited 2013. 9. 27.] <news.donga.com>
- [31] Korean Publishing Research Institute. 2010. *2010 National Reading Survey*.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32] Korean Publishing Research Institute. 2009. *2009 National Reading Survey*.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33] Korean Publishing Research Institute. 2008. *National Reading Survey*.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34] Korea School Library Research Society. 2013. *Policy Proposal for Teacher Librarian Job Tasks*. [online] [cited 2013. 10. 6.] <<http://cafe.daum.net/kslrs>>